

# 위빠사나 수행법 학술적 조명

## 근본불교수행도량, 10월 19일 진흥원 법당서



◇경남 김해 다보경사의 위빠사나 수행자들이 부처님 탄생지 인도 룸비니에서 좌선 수행을 하는 모습.

화두를 붙잡고 수행하는 강화선과 달리 현재 의식을 좇아 궁극적 실재를 통찰하는 위빠사나 수행법. 바로 이러한 접근의 쉬운 때문에 일반인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위빠사나(Vipassana)를 본격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사)근본불교 수행도량(이사장 원명·홍원사 주지)이 10월 19일 오전 10시 대한불교진흥원 법당에서 마련하는 '대념처경'의 수행 이론과 실제' 학술대회다.

1988년 거해 스님이 미얀마의 최고 위빠사나 수행자 마하시 스님의 제자인 우 뱌띠다 스님을 초청해 법회를 열면서 우리 나라에 알려지기 시작한 위빠사나는 90년 중반 국내에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지금은 위빠사나를 교육하고 수행하는 장소만 10여 군데에 이를 정도.

하지만 대중적 인기로 인해 학술적 접근은 이에 못 미쳐 불교학 관련 학회에서 단편적으로 소개되어 온 게 사실



◇마하시 스님



◇고옌카

## 이론·실제수행 두 측면서 토론 시대에 따른 방법상 차이도 고찰

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위빠사나를 독립된 주제로 다루며 본격 조명한다는 점 하나라도 관심을 모으기에 충분하다. 학술대회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 팔리어 경전 가운데 위빠사나 수행의 가장 중요한 소의경전인 <대념처경>과 그 주석서에 나타난 수행의 이론적 측면을 고찰하는 부분이 앞서고, 실제로 <대념처경>을 소의경전으로 하고 있는 두 가

지 수행법 즉 마하시 수행법과 고옌카 수행법을 고찰하는 부분이 뒤따른다.

임승택(동국대 강사)과 미산 스님(백양사 참사) 수행원장씨가 이론적 측면을 고찰하고, 일승 스님(인도 델리 대 재학)과 김재성(고려대장경연구소 선임연구원)씨가 실제 수행 부분을 맡았다. 뿐만 아니라 조준호(동국대 강사, 재연 스님(실상사 화엄학림학관), 안승준(동국대 강사 안양구(동국대 교수) 등 팔리어와 초기불교를 전공했고, 직 간접으로 위빠사나 수행을 접한 국내 연구자들이 토론자로 총출동한다.

학술대회 운영위원이기도 한 미산 스님은 '위빠사나를 강화선의 대체로 보자는 취지는 아니다'며 '위빠사나에

대한 이론을 정리하고 실제 수행을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들에 집중 논의함으로써 종합적인 정리의 자리를 마련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국내에 위빠사나를 처음 알린 미얀마의 우 뱌띠다 스님이 참석해 <대념처경>과 위빠사나 수행'을 주제로 기초 법문을 할 예정이다.

학술담당= 권형진 기자 jiny@buddhapia.com

## “간다라 미술 우리시각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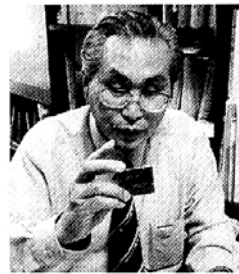
### 파키스탄 불교미술 조사 다녀온 문명대 교수

◆어떻게 진행되나?

“첫 해는 탁실라, 스와트, 페샤와르 등 박물관 소장 유물 조사 중심이다. 올 12과 내년 2월에는 전시실뿐 아니라 수장고 유물도 조사한다. 2~3년 차에는 유적지 현장 조사와 발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가능하다면 아프가니스탄의 간다라 유적·유물도 조사하고 싶다.”

◆어떤 의미가 있나?

“간다라 문화에 대한 연구는 서구 것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서구 연구자들의 관심은 서구 헬레니즘 문화가 동방으로 전파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 직접적 영향을 받은 우리 입장에서 간다라 유적과 유물을 해석함으로써 동양 불교문화에 끼친 간다라 불



교미술의 편년을 새롭게 검토할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연대별 특징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현지 학자들이 7~8세기에 조성됐다고 보는 카르카이 마에불의 경우 중국 운강 석불, 한강 특색 출토 금동불 불상(400년 전후)과 비교해 보면 3~4세기로 조성연대가 훨씬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 동양불교에 끼친 영향 등 밝힐 계기 한국·중국과 비교 유물편년 재검토

교문화의 형성 과정과 진행, 전과 과정을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기대하나?

“아직도 체계적 발굴과 과학적 유물 정리가 안 돼 있다. 중국, 한국 유물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발견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술조사뿐 아니라 유물을 빌려와 전시회를 열기도 한결 수월하다”며 “이제 선진국 박물관에 한국실을 내는 것도 좋지만 파키스탄처럼 우리 문화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지역의 박물관 지원도 고려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담당 공무원들은 스스로 문화재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앙 행정부처가 자신들의 비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세우는 것을 가장 큰 고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 지자체 문화재 담당공무원들 65.3%가 “전문성 보통 이하”

### 관련 업무 4년미만 근무자도 76%나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이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 공무원 201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6~20일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화재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에 대한 질문에 전체의 65.3% 보통 33.2%, 낮다 32.1%가 '보통 이하'라고 응답했다. 전문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도 34.7%로 나왔지만, 정 의원은 “문화재 업무의 전문

성에 비춰볼 때 매우 우려할 수준”이라고 밝혔다. 문화재 정책 입안자가 일선 문화재 담당 공무원의 근무여건 및 고충에 대해 얼마나 이해한다고 생각하는지는 설문에서는 40.5%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응답(이해한다 20.5%, 보통 39.0%)했는데, 이해가 부족한 부분 1순위로 '일선 공무원들의 비전문

성' (51.1%)을 꼽았다. 두번째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중앙 정부의 정책만을 고수한다(20.2%)로 나왔다. 일선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비전문성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입안자들의 일방적 정책 고수를 가장 힘들게 생각한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다. 일선 문화재 담당 공무원의 비전문성은 문화재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것과도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전체 응답자의 76.4%가 문화재 업무를 맡은 지 4년이 안 됐으며 이전에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전체 15.4%에 그쳤다.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데다가 외부 전문가의 활용도 떨어진 다. 지역 문화재 업무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묻는 질문에 참여도가 높다는 응답은 27.1%인 데 비해 37.0%가 높지 않다. 35.9%가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문화재 보수 정비 예산의 집행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55.1%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응답했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14.3%에 머물러 문화재 보존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 불교문화재 DB구축에 50억

### 안정적 보수정비 위한 문화유산기금 신설도

#### 문화재청, 10년계획 발표

문화재청이 앞으로 10년 동안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찰소장 불교문화재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

다. 또 중장기 계획에 따라 중요 문화재를 안정적으로 보수정비하기 위해 문화유산기금을 신설한다. 문화재청은 건조물 문화재 보존, 매장문화재 보호 등 문화재 정책 전반

에 걸쳐 2011년까지 향후 10년간 추진할 중장기 계획을 담은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 계획'을 4일 확정, 발표했다.

기본 계획에서 문화재청은 특히 동산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10년에 걸쳐 석가탑에서 나온 <무구정광대라니경> 등 중요 전적(典籍) 문화재에 대한 종합 실태조사를 벌이고, 이를 DB화하는 데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올 초 시작된 사찰소장 불교문

화재(3만1200백건 추정) 일제조사도 50억 원의 예산을 들여 10년 동안 진행한다. 또 동산문화재가 집중된 주요 사찰, 서원 등에 853억 원의 예산을 배정, 유물 전시관 건립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은 1년 단위의 예산 집행방식으로는 효율적인 문화재 보수정비가 어렵다는 판단 아래 미국의 '역사유적 보존기금'이나 프랑스의 '발굴문화재 보존기금'과 같은 별도 기금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맛지마니까야 한글판 발간

### 백도수 박사, 용어·구절마다 해설 달아

한역 대장경의 <중야합경>에 해당하는 팔리어 대장경 <맛지마니까야>의 한글 번역본이 새로 나왔다. 지난 7월 전재성 박사(한국배알리성전협회장)가 첫 한글 번역본을 낸 데 이어 두 번째이다.

전 박사의 번역본이 쉬운 우리말 번역의 맛을 살렸다면, 백도수 박사(동국대 강사)가 최근 출간한 <맛지마니까야(中野) I>은 용어 하나 하나에 대한 정확한 해석에 방점을 뒀다. 의역보다 직역에 가깝게 번역했으며 붓다고사의 주석서(Papa cas dan)를 비롯해 여러 주석서를 최대한 활용, 풍부한 주해를 달아 용어·구절을 설명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아직 깨달지 못한' (제4경)이라는 구절이 나왔을 때 무엇을 깨닫지 못했다는 말인지 아리송할 때 '사성제를 이해하지 못한' 뜻이라고 설



명한 붓다고사의 주석을 보면 절로 고개가 숙여질 만하다. 불자들이 너무나 익숙한 '이와 같이 들었다'는 말 속에는 '나에 의해 들려진 것이다' 또는 '나의 들은 것이다'라는 두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다.

전문 연구가들을 위해 주에 달린 붓다고사의 주석서 원문을 뒤에 따로 실었다. 전체 세 편 152경 가운데 첫 편 25경에 대한 번역서이다.

백 박사는 <맛지마니까야>가 승가와 재가의 수행과 깨달음의 과정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가장 먼저 번역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한 백 박사는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인도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동국대에서 비구계경에 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특어** BBS 불교방송(길음 찾아서) **특어**에 의한 승복의 우수성을 설명  
국내최초로 특어청에 의장등록 (제 0246178호)

## 승복 · 범복 · 잠옷 · 바랑 판매 안내

불교계와 저희 기원점유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 고급모직 (특징 - 통풍 잘됨, 가볍고 구김없음, 물세탁 가능)  
(적삼, 바지, 조끼 : ₩170,000) (동방바지 : ₩160,000) (두루막 : ₩140,000)
2. 쿨맥스 (특징 - 품질 가장 우수함, 수분 발산율이 빠름, 구김없고 아주 가벼움, 물세탁가능)  
(적삼, 바지, 조끼 : ₩180,000) (동방바지 : ₩170,000) (두루막 : ₩150,000)
3. 특수직 (특징 - 제일 가볍고 시원함, 물세탁 가능)  
(적삼, 바지, 조끼 : ₩140,000) (동방바지 : ₩130,000) (두루막 : ₩110,000)
4. 아포텍스 (특징 - 몸에 붙지 않으며 까칠함, 물세탁 가능)  
(적삼, 바지, 조끼 : ₩160,000) (동방바지 : ₩150,000) (두루막 : ₩130,000)
5. 광목 (특징 - 순수한국산, 순염색, 멋을 가진 승복)  
(적삼, 바지, 조끼 : ₩170,000) (동방바지 : ₩160,000) (두루막 : ₩130,000)
6. 장삼 (조계종, 태고종) - 춘추, 하절기(가사도 주문 받습니다.)  
(고급모직 : ₩220,000) (특수직 : ₩200,000)
7. 셔츠 (차이나, 라운드) : 가볍고 시원하며 물세탁 가능 : ₩30,000
8. 걸망, 바랑, 나들이가방, 손가방, 보조가방
9. 가볍고 예쁜 범복(회색, 밤색) : 조끼 바지 : ₩65,000

**하절기 시원하게 보내실수 있게 저희 기원점유가 책임지겠습니다.**  
스님께 가사로서 보시어낸 심선(心善)을 지어 5가지 큰 공덕으로 삼계달란을 소멸합니다.

● 잠옷(항균처리) - 남, 여(상, 하) : ₩65,000  
특징 : 1. 특허청에 의장 등록된 울자, 연꽃무늬가 은은하게 들어있음 (제0246178호)  
2. 항균처리된 제품  
항균처리란? 각종 박테리아와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시켜 악취 발생을 방지하고 청결한 몸상태를 유지시켜주는 특수제품 임

3. 고급순면으로 촉감이 아주 뛰어나  
\*유사품이나 모방할 경우 법적권 침해 받습니다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업체 '수레바퀴' 본 사 : 대구 동구 신천 3동 139-1 봉영 B/D 302호  
**기원점유** TEL : (053)764-4114 H·P : 011-9850-4400 **지역 판매점 모집**

## 자랑스러운 우리 태극전사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

전 세계가 놀란 우리 선수들의 지킴이 모르는 체력!

신진축구의 파워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수신토종오가피가 함께 했습니다. 저희의 작은 정성이 우리 선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꼭 확인하십시오!  
우리 선수들이 먹는다면 선전하는 오가피제품들이 있습니다. 우리 축구국가대표팀이 먹은 오가피는 '수신토종오가피'입니다.

**사진 확인이겠습니까?**  
수신토종오가피는 국내최대오가피배자 성광수씨가 재배한 100% 토종오가피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입니다. 품질에 대한 자부심으로 한봉지 한봉지마다 국내최대오가피배자 성광수씨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이 없다면 축구국가대표선수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가 아닙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최근 중국산오가피를 북한산이나 국내산으로 표기하여 적발된 업체들이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수신토종오가피는 중국산도 북한산도 아닙니다. 오직 국내에서 재배한 국내산토종오가피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접 오셔서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국내최대배자 성광수씨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직접 농장견학회를 열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02)447-5300**